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 창세기 12장 1-9절

Tag: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겟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12:1-9)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데라는 우르에서 아들 아브람, 그 아내 사래(배다른 누이임), 손자 롯(롯의 아비 하란은 우르에서 죽음, 하란의 죽음이 우르를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

런데 공교롭게도, 하란으로 떠나는데 하란이 죽은 이후에다. 그리고 롯은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란의 죽음이 지역이름 하란과 관련이 있는 듯하며, 하란이 먼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다가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른다.), 나홀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나 여정이 길었고 하란이라는 곳이 살기에 매우 좋았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하란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다. 나중에 이 하란에 나홀의 성도 있었다고 나온다. 왜냐면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나홀의 성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홀은 아버지 데라의 가업을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상을 만드는 일? 아마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하란으로 하여금 상업중심지 하란에 가서 사업을 넓히도록 했을지 모른다.)

데라의 가족들은 이미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정착하였으며, 데라와 나홀은 계속해서 그 성에 머물렀으나 아브라함은 달랐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은 말고 오직 너와 사래가 가나안으로 가서 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가나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을 떠났으며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재산을 정리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다.

12:1 아비의 집과 친척을 떠나라. from your kindred.

롯을 할아버지 데라나 나홀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을텐데, 롯은 굳이 아브람을 따라 나섰고, 아브람도 롯 만큼은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려간걸 보니 아브람과 하란의 사이가 각별했을 것이다.(짐작컨대 사래가 하란의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롯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모 사래이다.) 그러나 아무튼 친척을 떠나라 했으니, 롯을 데려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치관과 뜻이 맞지 않는 친척과의 동행은 아무래도 짐이 된다. 아브람은 기꺼이 그 짐을 감당한 셈이다.

12:2절 너는 복(명사형blessing)이 될지라 -미래 선포형 목적격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람은 미래에 그 자체가 복이 됨.

-아브람이 결국 복이 되어 버림. 아브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퍼지도록 하심.

12:3 복을 다루는 기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라는 번성하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아브람부터 새로운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은 축복을 통해서이다.

-누구든지 아브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도 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람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며, 그 선행으로 말미암는 복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리고 후손에게는 유업의 형식으로 복이 전달되고, 재산의 형식으로 복이 전달되지는 않는다.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심.

12: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음. 유목민족이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선택한 생업임. 그 집의 가업은 우상제조였지만, 이제는 본업을 버리고 유목생활을 선택했다. 그만큼 고생이 되고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다 왔지만, 여전히 생업이 유목이었기 때문에 식량을 따라 애굽까지 가게 됨. 유목민은 식량이 가장 큰 문제이다.

12:10 기근으로 인한 애굽행

-아브람의 위기. 그러나 아브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람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 아내 사래를 누이라 함. 대대로 이어지는 거짓말.

-애굽에서 사래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래를 아브람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

-그러면서 애굽에서 재산을 모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옴. (마치 출애굽의 전형과 같음)

-이제는 재산이 있으므로, 한 곳에 더 오래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됨. 유목생활은 하인들을 통해서 계속하게 됨.

13:4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곳임.

-처음 신앙을 잃지 말라는 의미도 됨.

13:10 세속도시로 떠나는 롯 (요단 동편 물이 넉넉한 땅)

-결국 롯은 사명을 저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된다. 도시로의 이주가 사명을 저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의 롯으로서는 그랬다.

13:17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위로 하시는 하나님.

14장 아브람의 전쟁; 아브람에게 어느정도 세력이 만들어지자, 아브람도 전쟁에 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지역사회에 중요한 유지가 된 셈이다.

1 시날 왕(아브라멜), 엘라살 왕(아리옥), **엘람 왕(그돌라오멜)**, 고임왕(디달) 4왕

2 소돔 왕(베라), 고모라 왕(비르사), 아드마 왕(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벨라) 5왕

-다섯왕이 엘람왕에게 반역함.

-그돌라오멜 연합이 먼저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족속을 침.

4왕 연합에게 5왕 연합이 패함. 롯이 사로잡혀 감.

아모리족속의 마므레의 땅 헤브론(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던 아브람이 마므레 3형제(에스골, 아넬)와 함께 그돌라오멜을 토벌하려 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갔다가 다메섹 원편 호바에서 급습함.

군사들과 마므레 3형제에게는 분깃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는 십일조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소돔왕에게는 그 되찾은 재산 일체를 돌려주었다.

-결국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지경을 평정하였으며, 각 족속들은 자기들의 지경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당시의 수준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깃들게 된 셈이었다.

15:5 하늘의 못 별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거룩한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원대한 계획. 창조시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하시려 하심.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시기 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기 원하신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유업을 이어받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써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신앙생활의 유익 성경: 시편25편

Tag:

- 1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 2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 8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 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피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25:1-22)

1.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그럴 듯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속임으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자들. 수치는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이 당하지 않는 것.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어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다.

-내가 주를 기억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나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

2.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12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어디에서 살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전공으로 삼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유산이 있게 하신다.

3. 환난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물과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눈 팔면 그물에 걸리게 됨.
-외롭고 괴로움. 고난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